

# 연패 끊으려... 양승철이 간다



## T 타이거즈 전망대

KIA 타이거즈가 '운명을 건' 서울 원정길에 나선다.

KIA에는 지우고 싶은 한 주였다. 잠자던 타격이 살아나니 잘 버텨주던 '젊은 마운드'가 흔들렸다.

지난 16일 1이닝 7득점의 신바람 타격에도 9-10 재역전패로 시작된 KIA의 패배는 21일까지 멈추지 않았다. 6연패에 빠진 KIA는 10구단 체제 처음으로 10위 자리에 이름을 올렸다.

여전한 투-타의 불균형 속 믿었던 마무리 김윤동까지 부상으로 쓰러지면서 KIA에는 약재만 쌓여있다.

고민 많은 KIA가 서울로 떠났다. 23일부터 잠실에서 LG 트윈스와 주중 3연전을 치르는 KIA는 주말에는 고척으로 이동해 키움 히어로즈와 상대한다.

## LG·키움과 원정 6연전... 양현종 왼팔 타박상에 선발 조정

오늘 켈리와 맞대결... 올 시즌 개막전 2패 설욕 기회

"직구로 자신있게 승부하겠다" 출사표... 분위기 반전 기대

LG는 올 시즌 KIA의 첫 상대였다.

KIA의 스텝은 개막전 때부터 꼬였다. 양현종이 6이닝 1실점으로 스타트를 잘 끊어줬지만, 1회 무사 만루의 기회에서 득점에 실패한 타자들이 3안타를 생산하는 데 그치면서 0-2 영봉패로 시즌이 시작됐다.

두 번째 경기에서는 터너가 호된 KBO리그 신 고식을 치르면서 2-9 패가 기록됐다.

LG와의 첫 만남은 그렇게 2패로 끝났다.

그리고 첫 경기에서 첫 승 기회를 놓쳤던 양현종은 동계 훈련과 실전 부족 여파가 더해지면서 이후 두 경기에서 6이닝 6실점, 2이닝 7실점으로 고개

를 숙였고, 팀은 어려운 초반 행보를 이어가야 했다.

앞선 키움과의 맞대결에서는 비로 한 경기를 치르지 못하면서 1승 1패를 주고받았다.

KIA는 지난 시즌 키움과의 상대 전적에서 9승 7패로 앞섰다. 하지만 연장 10회 승부에서 김재현에게 끝내기 패를 당하는 등 원정에서는 3승 5패를 기록하는 등 유독 고척에서의 기억이 좋지 못하다.

고척에서의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도 황당한 실수가 이어지면서 KIA의 2018시즌 최종전은 허무하게 끝났었다.

안 좋은 기억을 지우고, 패배의 충격도 지워야

## ■ KBO 중간순위 (22일 현재)

순위	팀명	경기	승	무	패	승률	게임차
1	두산	25	17	0	8	0.680	0.0
2	SK	25	15	1	9	0.625	1.5
3	키움	25	14	0	11	0.560	3.0
3	LG	25	14	0	11	0.560	3.0
3	NC	25	14	0	11	0.560	3.0
6	한화	25	11	0	14	0.440	6.0
6	롯데	25	11	0	14	0.440	6.0
8	삼성	25	10	0	15	0.400	7.0
9	KT	26	10	0	16	0.385	7.5
10	KIA	24	8	1	15	0.348	8.0

하는 위기의 순간이지만 시작부터 쉽지는 않다.

KIA는 23일 양현종이 아닌 '늦깎이 신인' 양승철이 LG 켈리와 맞대결에 나선다.

부상 도미노에 군필 대졸 신인 양승철(사진)이 선발 기회를 얻었다.

양현종은 지난 17일 사직 등판에서 신봉기의 타

구에 왼팔을 맞으면서 타박상을 입었다. 코칭스태프의 판단은 "서두르지 않겠다"였지만 양현종이 강한 욕심을 보이면서 엔트리 말소는 하지 못했다. 대신 로테이션을 조정하면서 대체 선발이 투입되게 됐다.

선발로 시작했던 임기영이 옆구리 부상으로 빠졌고, 황인준도 팔꿈치 통증으로 다시 엔트리에서 제외되면서 2군에서 선발 수업을 받았던 양승철이 23일 경기를 책임지게 됐다.

양승철은 "기회가 왔으니 놓치지 않고 싶다. 자신 있게 승부를 하겠다"며 "땅볼을 유도하는 각이 작은 포크와 헛스윙을 유도하는 포크볼 두 가지를 구사한다. 앞선 두산전에서는 포크볼 제구가 아쉬웠는데 이 부분 신경 쓰겠다. 또 자신 있게 직구를 던지면서 좋은 승부를 하겠다"고 밝혔다.

양승철이 '난세의 영웅'으로 등극하면서 KIA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월요일 밤엔 'K리그2' 보는 재미

### ■ 먼데이 나이트 풋볼 경기 일정

5월 20일	광주-서울E (광주월드컵경기장·19시30분), 부천-부산 (부천종합운동장·19시30분)
5월 27일	안산-부천 (와스타디움·19시30분), 부산-전남 (구덕운동장·20시)
6월 17일	서울E-전남 (천안종합운동장·19시), 안양-부산 (안양종합운동장·19시30분)
6월 24일	수원F-광주 (수원종합운동장·19시), 부천-서울E (부천종합운동장·19시30분)
7월 8일	수원FC-부천 (수원종합운동장·19시), 안양-대전 (안양종합운동장·19시30분)
8월 12일	안산-아산 (와스타디움·20시) 서울E-수원F (잠실종합운동장·20시)
8월 19일	전남-아산 (광양전용운동장·19시), 대전-부천 (대전월드컵경기장·19시)
8월 26일	광주-대전 (광주월드컵경기장·19시30분), 아산-수원FC(이순신종합운동장·20시)
9월 23일	아산-전남 (이순신종합운동장·20시), 부산-광주 (구덕운동장·20시)

### 9월 23일까지 '먼데이 나이트 풋볼'

#### 총 20경기... 광주 FC 총 4경기

월요일 저녁이 K리그2로 풍성해진다.

K리그2 월요일 야간경기 '먼데이 나이트 풋볼'이 22일 시작돼 오는 9월 23일까지 계속된다.

2016년부터 편성된 '먼데이 나이트 풋볼'은 K리그2 10개 클럽이 2차례씩 월요일에 홈경기를 갖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2일 광양전용 구장에서 열린 전남 드래곤즈와 서울 이랜드와의 경기 등을 포함 오는 9월까지 총 20경기가 월요일 저녁에 열린다.

K리그2 선두를 달리고 있는 광주FC는 4차례 '먼데이 나이트 풋볼' 경기를 치른다.

### ◇먼데이 나이트 풋볼 경기 일정

▲5월 20일 : 광주-서울E (광주월드컵경기장·오

후 7시30분), 부천-부산 (부천종합운동장·오후 7시 30분) ▲5월 27일 : 안산-부천 (와스타디움·오후 7시 30분), 부산-전남 (구덕운동장·오후 8시) ▲6월 17일 : 서울E-전남 (천안종합운동장·오후 7시), 안양-부산 (안양종합운동장·오후 7시30분) ▲6월 24일 : 수원F-광주 (수원종합운동장·오후 7시), 부천-서울E (부천종합운동장·오후 7시30분) ▲7월 8일 : 수원FC-부천 (수원종합운동장·오후 7시), 안양-대전 (안양종합운동장·오후 7시30분) ▲8월 12일 : 안산-아산 (와스타디움·오후 8시) 서울E-수원F (잠실종합운동장·오후 8시) ▲8월 19일 : 전남-아산 (광양전용운동장·오후 7시), 대전-부천 (대전월드컵경기장·오후 7시) ▲8월 26일 : 광주-대전 (광주월드컵경기장·오후 7시30분), 아산-수원FC (이순신종합운동장·오후 8시) ▲9월 23일 : 아산-전남 (이순신종합운동장·오후 8시), 부산-광주 (구덕운동장·오후 8시)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충장중인 춘계중학교 야구 대회 우승을 확정된 뒤 무등경기장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아시아협회 제공>

## 충장중, 춘계 중학 야구대회 우승

2019년 춘계 중학교 야구대회에서 충장중이 우승을 차지했다.

충장중은 최근 무등경기장에서 끝난 춘계 중학교 야구대회에서 3연승을 달리며 우승팀이 됐다. 제66회 전국 중학 야구 선수권대회 예선대회를 겸한 이번 대회에는 작년 우승팀인 동성중을 포함한 4개 팀이 참가해 리그전으로 대결을 벌였다.

충장중은 무등중을 상대로 7-5 승리를 거둔 뒤 진흥중과의 대결에서도 6-2로 이겼다. 그리고 마지막 동성중과의 승부는 9-2, 6회 콜드게임으로 마무리했다.

한편 제66회 전국 중학 야구 선수권대회는 오는 6월 경주에서 열린다.

### ◇시상내역

▲최우수선수상 : 정태백(충장중) ▲우수투수상 : 김강로(충장중) ▲타격상 : 김다빈(9타수6안타/0.667·진흥중) ▲최다도루상 : 정태백(3개·충장중) ▲최다타점상 : 이민재(6타점·충장중) ▲감투상 : 황건우(진흥중) ▲미기상 : 김호성(진흥중) ▲감독상 : 나갑남(충장중) ▲지도상 : 정길본(충장중 교장)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출루 머신' 추신수

### 휴스턴전 3번 출루 3득점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가 '출루 기계'의 명성을 높이고 팀 승리에 앞장섰다.

추신수는 22일 열린 2019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서 1번 타자 우익수로 출전해 2루타와 볼넷을 포함해 세 차례 출루하고 3번 홈을 밟았다.

추신수는 시즌 타율 0.318(66타수 21안타)을 기록했다. 출루율은 0.419에서 0.430으로 올라갔다.

추신수는 전날처럼 1회에 2루타를 날려 대량 득점의 토대를 마련했다.

우익수 쪽 2루타로 출루한 추신수는 후속 타자의 내야 땅볼 때 3루에 진루한 뒤 조이 겔로의 우선상 3루타 때 홈을 밟았다.

추신수는 3-1로 앞선 3회에도 선두타자로 나와 볼넷을 끌다 추가 득점의 징검다리를 놓았다.

그는 1사 후 엘비스 안드루스의 2루타 때 3루에 간 뒤 겔로의 1루 땅볼 때 두 번째로 득점했다.

추신수는 4회엔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고 10-6으로 리드하던 6회 다시 볼넷으로 나간 뒤 겔로의 내야 안타 때 도망가는 득점을 올렸다.

8회에는 투수 양 땅볼로 타격을 마쳤다. 텍사스는 홈런 5방을 앞세워 무섭게 추격한 휴스턴을 11-10으로 겨우 따돌렸다.

한편 추신수는 6회 윌리엄스 구리엘의 타구를 잡다가 시즌 두 번째 실책을 남겨 실점의 빌미를 주기도 했다. /연합뉴스